

살롬신학교 이야기

똑딱 똑딱, 돌돌돌돌, 주룩주룩, 드르륵, 쿵쿵쿵쿵, 덜컹덜컹, 쿠르릉



활기찬 기계소리들이 니아스 살롬 신학교를 가득 메웁니다.

올해 8월부터 살롬 신학교는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와 식당, 화장실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강의실과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을 건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5년, 관측 이래 9번째로 큰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니아스 섬.

모든 교회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현지 교단과 교회들은 신학교가 먼저 세워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일한 건축자재였던 목재로 4개의 강의실과 2개의 남,녀기숙사, 행정실 등 1동짜리 2층 건축물로 살롬신학교가 탄생 했습니다.



그 후 19년이 흐르는 동안 졸업생 700명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220명의 학생, 교수 18명, 행정직원 6명이 재직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신학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년간 건물을 지탱해 준 나무자재가 열대야 기후에 의한 노후화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라얍'이라는 흰나무 개미가 목재를 갉아 먹어 이곳 저곳 목재가 파이고 구멍이 나면서 끊임 없이 훼손이 진행중 입니다.

강의실 바닥은 구멍이 뚫리고 내려앉아 수업이 어려우며, 기숙사 천장 및 바닥 역시 붕괴될 상황에 처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학생들은 묵묵히 학습을 이어 나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안전문제로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이 부담이 되어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큰 울림을 주시면서, 이제는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건축을 시작하지만 완공이 목표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 건축을 통해 살롬 신학교의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건축담당자와 인부들, 함께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매일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역사이팅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지 알기에 그 분을 더 가까이서,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은 가슴 설레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 신학교가 목사와 초종교 종교교사를 양육하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다리가 되어 수많은 영적 리더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중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살롬 신학교를 잘 세워서, 이 곳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편협한 안목이 부끄러웠고, 살롬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건축에 소요될 총 예산을 계산을 보니 8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것은 2천 5백만원.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마음 하나 붙잡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첫걸음 위에 한 과부의 두 렵돈이 벽돌 한 장으로 쌓이고, 한 성도의 은퇴자금 중 일부가 또 벽돌 한 장이 되고, 사회 초년생의 첫 월급, 한 대학생의 추석 용돈과 장학금, 오랜 지인들과 후배들의 마음, 파송교회 교인들의 사랑, 그렇게 벽돌이 한 장 또 한 장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고 해 주시는 기도가 시멘트가 되어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건축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저희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매일은 영적으로 저희를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매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 분만을 신뢰하겠다고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건축을 총 감독하는 디나 집사님과 30명의 인부들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 건축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제까지 수십억짜리 공사를 맡아왔던 디나 집사님은 처음으로 푼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비 전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만나면서 저희 인생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이번 건축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나눴을 때 디나 집사님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도전을 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축,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 자신도 경험해 보고싶다며 저희와 뜻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감리사인 디나 집사님은 매일 건축 현장에 나와 인부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인지 인부들도 저희를 만날 때마다 엄지척을 하며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줍니다.

인부들은 저희들이 건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인사말로 답해줍니다.

가끔은 그 말들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응원 같아 눈물이 핑 돌니다.



신학생들과 교수님들도 조를 짜서 건축현장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재정을 다 가지고 와서 잘 지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남 일보듯 하다가 저희가 상황을 정직하게 나눴을 때 깜짝 놀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루 두 끼를 겨우 먹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신학생들이 매주 조금씩 모은 헌금을 가져 왔을 때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어느새 채플 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전후에, 귀가 전에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신학교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건축하는 선교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밀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 분이 이끄시는 매일을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눈뜨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축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건물로서의 살롬신학교가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영적 부흥으로 불타 오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해 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축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 공사현장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12월
행복한 선교사 백진식, 안승현 드립니다.